

패션에 있어서 시간성이 반영된 룩에 관한 고찰

주 미 영* · 김 영 인**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A Consideration of Look Reflecting Time in Fashion

Mi-Young Joo* · Young-In Kim**

Ph.D. Candidate,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uman Environment & Design, Yonsei University**

(2005. 10. 24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new viewpoint in look by closely examining fashion and look through the past, present, and future. Specifically, the concept of time is studied and fashion is considered based upon the concept of time, finally, looks in fashion related to time are analysed.

For this study, the literature of retro, modern, contemporary, futuristic looks that expres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nd the classic look, the popularity of which transcends the concept of time was considered focusing on 20th century women's fashion. Design characteristics of these looks were analyzed utilizing photographs of collection imag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the retro look of different periods regularly rotate and appear, they change and develop in new and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periodic background of the time they appear in, and thus show simultaneously the cyclical and straight nature of time. Second, the modern look includes not only the meaning of time concept of the present, but also of interpreting anew the formal significance of modernism in the present. In other words, because it cyclically repeats the times of past modern periods, the look can be said to focus on the cyclical nature of time. Third, the contemporary look is a style that expresses current time most exactly as it exists, and it can be said to be the look in which current time is most vividly expressed. Fourth, the time concept in futuristic look is a subjective time that selectively accommodates and expresses the objective time of the future which has not yet come, and that can be the look's most important point. Last, the classic look possesses an objective value that transcends the concept of time, and it keeps returning, showing the cyclical nature of time.

The closer this study came to the present, it could be seen that a look communicated more complex meanings, influenced by periodic phases such as diversification, individualization, and eclecticism, and that while it could not be defined as any one look, various elements were expressed eclectically by being mixed and matched with each other, and it could utilize more natural forms, colors, and materials.

Key words: time(시간), look(룩), retro look(레트로룩), modern look(모던룩), contemporary look(컨템포러리룩), futuristic look(퓨처리스트룩), classic look(클래식룩)

I. 서론

인간은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간이 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시간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규명하려고 시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간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힘들며 심지어 시간을 측정하는 것조차 문화와 종교,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분야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시간은 하나의 개념과 하나의 방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학문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온 것이다.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 속옷과 겉옷, 그리고 상의와 하의를 입는 순차적 행위에도 이미 시간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계절에 따라 다르게 갈아입는 옷이나 주기를 갖고 변화하는 유행의 현상도 시간과 관련되어 있다.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은 크게 순환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 객관적 시간관과 주관적 시간관으로 구분되며 그 개념 또한 다양하게 변화, 발전되어 역사관과 문화를 형성해 오고 있다. 인간은 하루의 흐름과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시간관을 갖게 되었고, 윤회사상과 순환적 역사관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기도 하였다. 또 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시간을 창조와 종말이 있는 직선적인 시간 개념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한편, 불분명한 시간 측정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시간이 객관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철학자들도 고대로부터 시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이론을 펼쳐 왔으며 이는 과학의 발전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또한, 객관적으로 흐르는 시간과는 별도로 예술가들은 내적인 경험적 시간, 즉 주제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왔다. 시간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

이와 같이 시간이란 개념이 과학, 철학, 정치, 경

제, 예술 등 인간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 함께 하며 다루어지던 주제이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것에 비해 시간성이 중요한 패션분야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시간성과 관련하여 패션 분야에서는 패션트렌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패션트렌드에서 시간은 직접적인 영향요인이기 보다는 트렌드 관련 변수들에 영향을 미쳐 변화시키므로 그동안 패션트렌드의 연구에서도 시간성 보다는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과 원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시간성이 나타나는 패션 룩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레트로, 모던, 포스트모던, 미래주의 룩에 관한 것으로 룩의 의미와 조형적 특성, 시대적 변천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이며, 이를 시간성이라는 주제 아래서 하나의 총체적 관점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시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패션을 살펴봄으로써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간관을 고찰하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연속적인 시간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패션의 룩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시간 개념을 문헌 연구를 통하여 고찰하기 위하여 과학, 철학, 역사, 예술 등의 관점에서 시간개념을 살펴보고 개념을 정리, 분류하였다. 둘째, 패션과 룩을 시간개념을 중심으로 정의하였다. 셋째, 시간이라는 주제를 담은 패션의 룩을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적이고 총체적 관점으로 정리하고, 이에 표현된 시간개념을 고찰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조형적 특성을 정의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시간 개념의 정리 및 분류를 위한 인문학 관련 문헌과 논문, 패션 관련 문헌과 논문을 통한 문헌연구를 하였다. 시간개념을 표현한 현대 패션의 룩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은 국내외 컬렉션 자료와 디자이너의 작품을 전문 디자인 서적 및 잡지를 통해 수집하여 사례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현대 패션에 표현된 시간개념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을 주제로 다룬 20세기 여성 패션으로 제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룩(Look)’을 -풍(風), -조(調), 스

타일 등과 같이 어느 시대, 어느 기간 동안 나타나는 특징적 패션의 이미지를 표현하며 그 시대의 사상, 정서, 상상력 및 미적가치를 표출하는 수단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문화코드로 보았다.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시간개념이 20세기의 여성 패션 룩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 문화 기호로서 패션의 룩에 반영된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시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시간(時間, Time)이란, ‘어떤 시각에서 다른 시각까지의 동안, 또는 그 길이’를 말하며, 휴식시간, 점심시간 같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하여 정한 일정한 길이의 동안’을 의미하기도 한다. 철학에서의 시간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져 머무름이 없이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인다고 생각되는 것으로 공간과 더불어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이다.²⁾ 오랜 역사를 거치는 동안 인간이 바라보는 시간의 관점은 다양하게 변화되었는데, 로이포터는³⁾, 크게 객관적 시간관과 주관적 시간관, 순환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으로 나뉘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객관적 시간관과 주관적 시간관

인간은 세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을 두 가지 대립된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인간의 존재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객관적 시간관과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주관적인 시간관이 그것이다.

자연과학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 물리학의 창시자인 뉴턴은 인간이나 자연이 존재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다. 뉴턴에 의하면 물리적 세계에서 모든 변화는 시간이라는 차원에서 이

루어지며, 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시간 개념에 의해서 우주의 모든 진행은 고정되어 있고 계산할 수 있다는 인과론이 오래도록 과학 분야도 지배해 왔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관찰자가 그 자신의 운동을 변화시키면,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변하게 되어 인식되는 거리와 시간 간격이 달라진다고 하면서 절대적인 시간개념이 아닌 상대적 기준 틀에 의한 정지와 움직임, 느낌과 빠름을 정의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없이 공간 속에 펼쳐져 있고 공간은 3차원이 아니라 시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4차원의 시공 연속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⁴⁾

철학자나 문학가들도 시간은 주관적인 것이며 우리들 기억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며 외재적인 시간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칸트는 시간이란 외적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경험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느끼는 시간의 길이나 그 계속감이 감정, 흥미나·흥분 그리고 지루함이나 관심 있는 것 등에 의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연구해 왔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에 따라서 프랑스 철학자인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은 과학적인 시간과 그가 ‘순수지속(경험된 시간)’이라 부르는 것과 구별하면서, 경험된 시간은 본질적으로 정신적이며 심리적이라고 말했다.⁵⁾ 예술에서도 과학과 기술에서의 객관적인 시간과는 다른, 예술가에 의해 인식되고 표현되는 상상적 시간, 즉 내적이고 주체적인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예술가는 상상력에 의해 끊임없이 시간을 해체하고 재조립하여 새로운 예술적 시간을 창조하게 되는데 이는 과학적 시간과 대립되는 주관적이며 미적인 시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연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은 상반되면서도 서로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여 왔다.

2. 순환적 시간관과 직선적 시간관

시간은 반복되며 주기가 있다는 순환적 시간관과 시간은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직선적 시간관은 둘 다 오랜 역사를 가진다. 먼저 순환적 시간관을 살펴보면 고대인들은 낮과 밤의 연속을 보면서 하루를, 달이 차고지는 것을 보고 한 달이란 것을 생각했었고, 태양의 운동을 관찰하고 일 년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해서 알게 된 시간에는 주기성과 반복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것에 의해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윤회사상이 싹트게 되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등의 철학에서도 이러한 시간관을 엿볼 수 있다. 역사가들이 쓴 역사 또한 인간들의 시간관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의 역사가들은 인간 사회는 주기적으로 움직이지만 인간 본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⁶⁾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천체주기의 불완전성이 드러나고 진정한 주기에 의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순환적인 시간관보다는 직선적 시간관이 차차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직선적 시간관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사건은 그리스도교와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 종교와 관련된 세계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선 그리스도교 역사는 천지창조에서 최후의 심판까지의 인간의 운명은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서 예수의 탄생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순환되지 않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갖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으로 서구 문명의 대부분은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으며, 직선적 시간관에 영향을 받은 목적론적 역사 기술 체계가 지배적이다. 또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의해 그 시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옛 시대와는 매우 다르며, 옛 시대보다도 그들의 시대가 훨씬 진보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함께 ‘시간이란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미래는 진보를 의미하며, 거기에 유토피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⁷⁾ 그러므로 시간이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실 최근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점차 직선적이 되어 가고 있다. 19세기 서양과학의 발전,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에 있는 사용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소멸되어 가고 있다는 엔트로피를 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엔트로피와 자연은 천천히 변화하고 생물은 진화한다는 생각은 모두 시간이 화살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⁸⁾ 한편, 현대는 순환적 개념의 전통이 목적론적 체계에 접목되기도 하며, 직선적도 순환적도 아닌 카오스적 개념의 시간관이 등장하고 있다. 역사는 원인도 없고 상호관계도 없는 개별적인 사건, 주관적인 과거, 현재에도 계속 변화하는 과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시간관과 주관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과 순환적 시간관의 내용을 분류 및 정리한 것은 다음 <표 1>과 같다.

3. 시간관에 나타난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의 전체성, 영원성을 말하기도 하고 시간의 흐름 또는 그 흐름의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⁹⁾ 즉,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진행되는 시간의 흐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옛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사, 경험, 추억, 기억, 확인, 성취, 업적 등과 관계가 있으며, 과거에 대한 지식은 주로 자신의 직접 경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얻어지고 과거의 기록을 통해 확인

<표 1> 객관적/주관적 시간과 직선적/순환적 시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객관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과 기술로서의 객체적 시간 • 시계의 발달이 큰 자극이 됨 • 기술의 시간 	순환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의 차고 짐, 낮과 밤의 연속, 별들의 규칙적인 출몰, 계절의 변화 •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등의 철학자
주관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적 시간-내적이고 주체적인 시간 • 경험적 시간 • 예술의 시간 	직선적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의 쇠락, 노화과정 • 그리스도교, 르네상스, 종교개혁 • 목적론적 역사 기술

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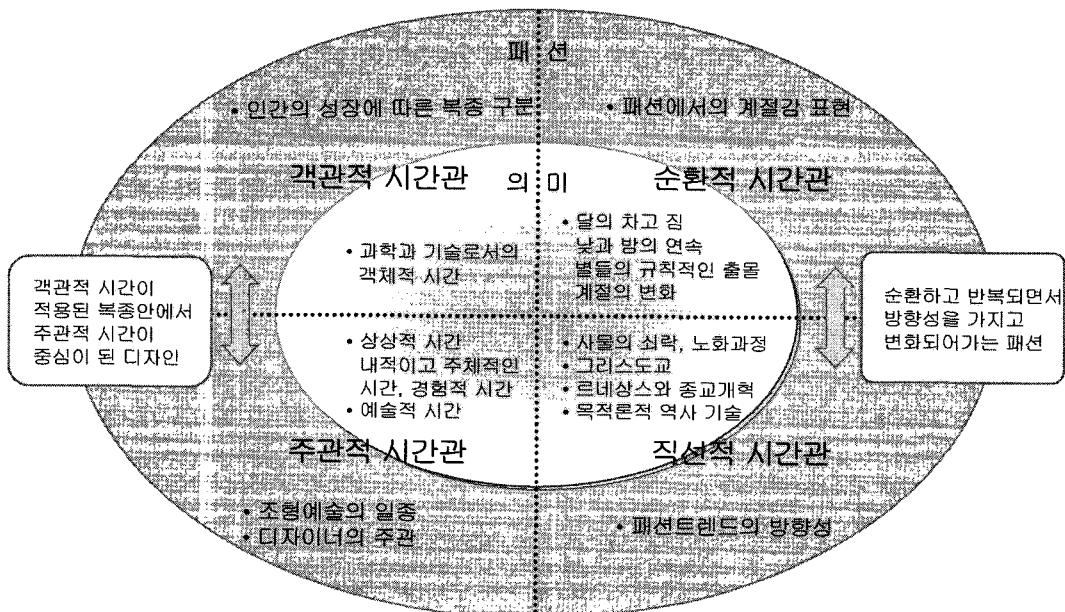
현재는 의사가 결정되고 행위가 발생하는 순간을 의미하는데, 시간은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방금 지나간 과거와 곧 다가올 미래를 동시에 내포하는 순간이다. 즉, 미래는 과거와의 단절이나 현재와는 전혀 다른 창조라기보다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시제에서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또한, 아우구스티누스¹¹⁾는 존재하는 시간은 현재 뿐임을 강조하며,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를 역동적으로 통합하는 시점을 제시했다. 즉,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따로 떨어져서 바라보는 객관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과거와 미래는 삶 속에 살아있는 시간으로서 항상 현재 속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 의식은 현상학자들에게 이어져 시간은 세계와 우리의 관계로부터 존재하며, 우리 자신이 느끼는 현재를 기점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적인 시점으로 다루어 시간에 대한 이론들을 패션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Ⅲ. 패션에 나타난 시간의 개념

1. 패션에 표현된 시간관

패션에서의 시간의 개념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로 정의 할 수 없는 객관적, 주관적, 순환적, 직선적 시간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패션을 디자이너의 주관에 의해 표현되고, 수용자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조형예술의 한 영역으로 보면 현재라는 시간이 중심이 되는 주관적 시간의 개념을 가진다. 즉, 디자이너는 각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현재의 수용자들이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패션을 제안한다. 한편으로 패션은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인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디자인 특성이 달라진다.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년의 구분에 따라 선호되고 수용되는 패션이 다르므로, 이러한 객관적인 시간에 의한 집단의 구분은 현재에도 패션 시장 세분화의 기준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동복의 경우, 아동의 특성에 맞는 체형과 심리적 선호에 의해 다른 복종과 구분되는 아동복만의 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은 디자인



<그림 1> 패션에 표현된 시간관의 구분

너의 주관적 해석에 의해 다양한 디자인으로 제안 되듯이 패션에서는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의미 있게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순환적인 시간관과 직선적인 시간관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순환적인 시간은 계절적 특성에 의해 잘 드러난다. 패션에 있어서 순환되는 계절은 변화를 추구하는 패션의 속성을 새로움과 다양성으로 표현하게 되며, 계절에 따라 감성, 소재, 색채, 형태 등 공통된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이 존재한다. 4계절이 순환되면서 같은 계절에는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시대적 상황에 맞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며, 계절적 공통성은 복식에서 작은 주기적 순환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주기가 시대적 요인에 의해 점차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면서 하나의 트렌드를 형성하게 된다. 패션 트렌드는 방향성을 가진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이면서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션의 요소들을 포함하는 특징이 있다.

1960년대 청년의 저항문화와 함께 등장한 히피 스타일의 경우 최근까지 여러 번 재해석된 패션 트렌드로 등장하였고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자연주의와 접목되면서 네오히피 스타일로 재창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패션에서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는 시대 정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기술 등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서 패션의 주기가 조금씩 변화하며 방향성을 가지는 패션 트렌드를 만들어 간다고 하겠다.

2. 패션에 표현된 과거, 현재, 미래

패션이란 어떤 한 시기에 있어서 그 시대의 사회를 반영하는 지배적 스타일이 대중에게 전파되어 일어나는 사회현상의 총칭이다. 지배적인 스타일은 복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제품이나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

한편, 트렌드는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시간적 연속성을 기본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

직이는 사회·문화·정치·경제·기술적 변화 현상으로 커다란 시대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할 때는 메가트렌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패션 트렌드는 이러한 메가트렌드가 패션에 반영되어 나타나는 경향이다. 패션 트렌드는 패션이 나아가는 방향, 실루엣이나 색채, 소재, 패턴, 디자인 디테일 등이 움직이는 방향을 말한다. 패션이 일정한 시기에 유행하는 지배적 스타일을 말한다면, 패션 트렌드는 과거, 현재, 미래로 변화하여 가기 때문에 복합시대의 연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패션과 차이를 보인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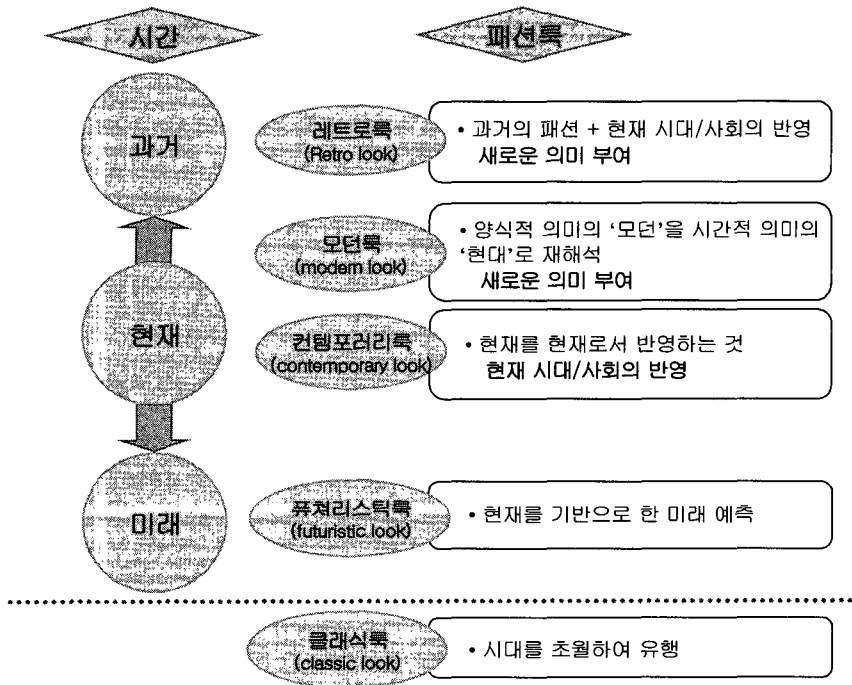
패션 트렌드는 주기성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때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맞게 과거를 현재에 새롭게 재현시키기도 하고, 미래의 시간을 현재에 표현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패션 트렌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상호 관련성을 지니는 복합적인 시제로 존재하면서 패션에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를 형성하므로 패션의 룩에 있어서도 이 세 차원은 상호 관련되어 나타난다.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시간성이 반영된 룩

앞에서 고찰한 시간개념을 바탕으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을 중심으로 현재의 삶을 반영하는 패션 룩을 20세기 여성 패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여성의 패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을 다양한 룩으로 표현하고 있다. 과거의 패션을 현재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레트로룩(retro look), ‘현재의’ 시간적 의미와 모더니즘이라는 근대 양식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모던룩(modern look), 현재의 시대상을 반영한 컨템포러리룩(contemporary look), 현재를 기반으로 한 미래 예측의 퓨처리스틱룩(futuristic look)과 시간 개념을 초월하여 시대에 상관없이 늘 선호되는 클래식룩(classic look)이 있다. 이러한 룩들을 시간과 관련하여 고찰해 봄으로써 패션에서의 시간개념

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그림 2>로 정리하였다.

니즘을 들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이성과 합리성의 단절 및 해체, 불확정성, 다원성에 기초한 해체주의, 절충주의, 기술



<그림 2> 시간성이 반영된 룩

1. 레트로룩

레트로(retro)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시 제자리에, 거꾸로, 재..' 등의 뜻으로 패션이나 음악 등의 '리바이벌이나, 재유행, 재연(再演)' 등을 일컫는다.¹³⁾ 이는 과거의 것을 재현하는 복고주의적 경향으로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 디자이너가 주관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단순히 옛 것에 대한 향수를 표현하기 위해 과거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감각을 현대와 접목함으로써 현대적 감성에 맞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레트로의 형성 배경에는 1980년대 이후 사회·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준 포스트모더

주의, 역사주의 등으로 나타난다. 레트로는 또한 오늘날의 사회가 다양화, 전문화, 산업화되는 시대의 추세에 따라 인간이 도시 생활에 싫증을 느끼고, 파괴되지 않은 환경과 과거를 그리워하며,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중시하게 되면서 정신세계에 대한 향수, 과거와 자연에 대한 동경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등장한 것이다.¹⁴⁾¹⁵⁾ 그러므로 레트로는 바쁘고 복잡한 일상생활과 물질문명 속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 편안함을 준다고 하겠다.

레트로룩이란 과거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복고주의 패션을 말하며, 그 당시의 시대적 감성을 반영하여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므로 각 시대별로 등장하는 레트로룩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현재 시

간 속에 재현된 과거의 시간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알 수 있다. 대중이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한 60년대에 표현된 레트로룩은 소비문화, 여성의 지위 향상, 청년 문화, 미니멀리즘 등에 의하여 20년대 풍의 단순한 모더니즘의 부활과 이와 상반된 물질적 가치와 미에 저항하며 등장한 히피 스타일을 통한 자연주의 회귀현상에 의한 것이다. 즉, 20년대 풍의 샤넬 수트와 짧은 헤어 컷 등이 60년대의 미니멀리즘과 청년 문화의 시대적인 배경과 만나서 더 단순하고 짧은 치마 길이로 표현되었으며, 히피스타일은 팜아트, 청년 문화와 만나 화려한 꽃무늬를 활용한 프린트와 메이크업 등으로 나타났다. 70년대의 레트로룩은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회의에 의해 등장한 자연주의에 대한 강한 요구와 함께 과거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열망에 의해 페전트(peasant), 민속풍의 자연회귀형 레트로로 표현되었다. 80년대에는 다양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주의, 다양성과 가변성을 수용하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레트로룩도 절충적 스타일로 등장하였다. 민속풍에 동양적인 요소가 가미되거나, 페미니

룩에 여성의 파워가 느껴지는 과장된 어깨 실루엣과 벨트를 활용한 가는 허리를 강조한 레트로룩으로 표현되었다. 90년대 초반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에콜로지 패션이 유행하였고, 후반에는 세기말적인 현상과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의 확산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를 표현한 레트로룩이 부상하였다. 그 결과 다양하고 빠르게 20세기에 유행했던 패션이 재등장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20년대 기능주의룩, 30-40년대 패션, 50-60년대 클래머 패션, 페미닌룩, 미니스커트, 70년대 핑크, 에스닉, 히피스타일, 80년대 여피룩과 파워드레싱, 블랙 열풍 등이 빠르게 재등장 하게 되었으며 시대적 특성인 자연주의적 경향이 색채와 소재, 실루엣에 영향을 주었다. 최근의 레트로룩은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이 극도에 달하여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패션 경향이나 특징들이 서로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과거의 감성은 살리되 현 시대상을 반영하여 개성을 존중한 스타일의 복합, 퓨전(fusion), 믹스 앤 매치(mix & match) 등으로 다양하고, 재미 있고, 고급스럽게 표현된다. 즉, 색채, 형태, 소재 등

<표 2> 레트로룩의 시대별 흐름

구분	시대적 배경	레트로룩의 특성	이미지	시각성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질문명의 발달, 소비문화, 대중 중심, 청년 문화, 여성의 지위향상 • 미니멀리즘, 팜아트 • 기존체제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저항문화와 히피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대 기능주의룩 - 짧은 스커트, 짧은 머리, 직선적인 실루엣, 단순한 디자인 • 히피룩 - 화려한 꽃무늬 프린트, 메이크업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회의에 의해 등장한 자연주의의 열풍과 과거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열망. • 에콜로지, 세계평화에 대한 관심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회귀형 레트로룩 - 페전트(peasant), 에스닉 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에 의한 특이적인 시간의 적용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주의 • 다양성과 가변성의 수용 • 파워드레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속풍 - 동양적 요소의 가미 • 50년대의 페미닌룩 - 과장된 어깨, 벨트를 활용한 허리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이너의 주관에 의한 주관적 시간성 부각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반: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한 에콜로지 산업의 대두 • 중반이후: 세기말로 접어들면서 밀레니엄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의 확산 - 과거에 대한 향수, 레트로 패션이 급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게 반복하며 시대별 레트로룩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의 순환성과 직선성을 동시에 보여줌
1990년대 이후 21세기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이 극에 달함. •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이너의 개성과 착용자의 개성에 의한 다양성의 표출 • 개성을 존중한 스타일의 복합, 퓨전, 믹스 앤 매치 - 색채, 형태, 소재 등의 디자인 요소를 서로 복합시키거나, 디테일을 접목 		

의 디자인 요소를 서로 복합시키거나, 디테일을 접목하되 여러 미적 요소가 전혀 어울리지 않게 연출되어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세기 후반 여성 패션에 표현된 레트로룩이란 지나간 과거의 패션에 나타난 다양한 경향을 현재의 시대정신과 감성을 반영하여 새롭게 해석하여 표현하는 과거 패션의 현재적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빠질 수 없는 트렌드의 하나이다.

레트로룩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시간성으로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적인 시간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즉, 현재라는 시간의 표현을 과거의 아이디어에서 차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과거의 시간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작가의 주관에 의해 재현시키게 되므로 주관적인 시간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레트로룩은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트렌드의 하나가 되었는데, 각 시대별 레트로룩이 주기적으로 순환되어 등장하면서 시대에 따라 새롭고 다양하게 변화, 발전됨으로써 패션트렌드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순환성과 직선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레트로룩은 패션의 다양함과 새로움을 추구하는 하나의 방법임과 동시에 현대문명안에서 느껴지는 속도감의 불안을 친숙함과 편안함으로 따뜻하게 느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하겠다.

2. 모던룩

모던(modern)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근대의, 근세의, 현대의 (ancient, medieval에 대하여)’의 뜻과 현대식의, 새로운, 최신의(up-to-dat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¹⁶⁾ 그러나 철학, 예술에서의 모던은 단지 시간적 의미로 ‘가장 최근’(the most recent)을 의미하지만은 않으며, 전략, 양식, 강령으로 이루어진 어떤 하나의 관념을 의미한다.¹⁷⁾ 모더니즘이란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서구 예술 분야에 풍미한 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운동을 가리키는 용어이다.¹⁸⁾ 인간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성애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진보, 발전시킨

다는 객관성의 논리로 20세기 전반기 시대정신을 형성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¹⁹⁾ 객관성의 논리에 따라 모던시대는 객관 과학, 보편적 도덕과 법, 자율적 예술을 발전시켰으며, 전체성, 보편성, 총체성, 객관성, 통일성 등을 중시하여 가장 이상적인 하나의 규범과 체제아래 모든 삶들이 종속되는 사회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엘리트 계층과 대중을 엄격히 구분하였으며 엘리트 계층이 시대를 지배하는 주체가 되었다.²⁰⁾

대부분의 예술 및 디자인 장르에서 모던 디자인이라 함은 대량생산과 기계 생산방식에 적합한 장식이 배제된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기능주의적 이론에 입각한 조형물이라 할 수 있다. 모던이란 개념에는 시간적 의미의 ‘현대’라는 의미 외에 양식적 의미의 ‘모더니즘’이 함께 존재하고 있으며, 과거 양식의 단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아방가르드의 추구라는 의미와 함께 시간에 있어서도 단절된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패션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맞게 장식이 배제된 직선적이고 단순한 디자인과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모더니즘이 팽배한 20세기 초반에는 그 시대의 시간적 의미인 ‘현대의’, ‘앞서는’ 아방가르드를 의미했던 직선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기능주의적 양식인 모던룩이, 시간이 흘러 포스트모던 시대인 현재에는 시간적 의미 보다는 ‘모더니즘’의 양식적 의미를 받아들여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시간은 이미 초월되는 특성을 보인다. 즉,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모던룩이라 함은 초기의 의미였던 때 시기 새로워지는 아방가르드를 의미하기 보다는 모더니즘 양식에 현대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새롭게 형태, 소재와 색채를 복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주의적인 양식의 모던룩을 특징적인 시대별로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20년대에는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여성의 역할 변화와 함께 활동적인 여성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남녀평등, 참정권 요구 등의 여성해방 운동의 사상적 영향과 재즈, 탭고에 대한 열정과 함께 패션에서도 단순성과 활동성을 부여하는 스타일과 직선적인 실루엣의 보이쉬룩, 가르손느룩(garçonne look),

플래퍼룩(flapper look)이 대표적인 모던룩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 무릎 길이로 짧아진 스커트 길이, 짧은 헤어 스타일, 납작한 가슴, 허리, 히프, 코르셋이나 장식 배제 등 기존의 곡선적인 여성스러운 스타일과는 대조적인 스타일이며 샤넬에 의해 더욱 발전되었다. 또한, 60년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성, 순수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의 등장과 함께 표현의 주관성 억제, 엄격한 간결성, 기하학적 예술형태를 강조하는 최소 표현기법의 예술사조가 유행하였다. 그러므로 60년대 모던룩은 미니멀리즘의 영향을 받아 더욱 장식이 없는 단순한 실루엣으로 표현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앙드레 쿠레주의 미니스커트와 판탈롱, 이브 생 로랑의 몬드리안 원피스 등과 같은 스타일을 들 수 있다. 그 이후 80년대에는 여피족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직선적이고 강한 이미지의 파워 드레싱(power dressing), 즉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성공을 위한 옷차림으로 강한 직선의 이미지가 실루엣으로 드러나며 단순한 색채를 적용하였다. 90년대 이후에는 비즈니스 수트의 간결성과 세련된

이지스타일(easy style)로 모던룩이 표현되었다. 단순한 베이직 스타일의 미니멀리즘으로 직업여성들의 이지스타일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단순하지만 인체의 자유로운 곡선미를 살리는 특징을 보였다. 대표적인 디자이너인 아르마니는 남성복 수트를 여성복에 적용하여 부드럽고 섬세하게 표현함으로써 세련된 모던룩을 형성하였다. 한편, 21세기 들어 모던룩은 정보혁명의 시기이자 포스트모던 시대인 현재의 시대를 반영하여, 다원적이면서도 주관성을 추구하고 있다. 장식이 배제된 단순한 형태나,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채, 인체의 곡선을 돋보이게 하는 기능성을 강조한 하이테크한 소재 등으로 재해석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간이 흘러도 모던룩은 장식이 배제된 직선적이고 단순한 디자인과 실루엣이라는 큰 틀을 유지한 채 소재나 실루엣에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모던룩은 현재라는 시간개념 뿐 아니라 모더니즘이라는 양식적인 의미를 현재에 새롭게 해석하는 의미가 포함된다. 특히, 현대의 모던룩은 새로운 시간성을 반영하는 아방가르드라기 보다는 과거 모던

<표 3> 모던룩의 시대별 흐름

구분	시대적 배경	모던룩의 특성	이미지	시간성
192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활동적인 여성상 요구 남녀평등, 참정권 요구 등의 여성해방 운동의 사상적 영향 패즈, 탭고의 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미쉬룩, 가르송느룩 (garçonne look), 플래퍼룩 (flapper look) 직선적이고 단순한 실루엣, 스커트 무릎길이에 짧아짐, 짧은 헤어스타일, 납작한 가슴, 허리, 히프, 플랫이나 장식 배제 색채 : 베이지, 브라운, 그레이, 블랙, 화이트 모더니즘의 미상인 단순성, 기능성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라는 시간성을 초월하여 과거 모던 시대의 시간성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현대에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둠 시간의 순환성에 중점을 둔 룩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성, 순수성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의 등장 최소표현기법의 예술사조 표현의 주관성 억제, 엄격한 간결성, 기하학적 예술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제시리와 장식이 없는 단순한 실루엣, 미니스커트 색채 : 흰색, 블랙, 화이트 최소 표현기법, 극단적인 간결성 		
1980,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대 여피족의 등장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파워드레싱의 상징성 1990년대 이후 비즈니스 수트의 간결성과 차별하지만 세련된 이미지의 여성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플하고 강한 파워 드레싱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베이직 스타일의 미니멀리즘으로 직업 여성들의 이지스타일(easy style)을 표현 - 인체의 곡선 강조 		
21세기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성시대, 이미지 시대, 정보혁명의 시기 자연친화, 웰빙 트렌드의 확산, 건강 추구, 개인의 개성 중시 글로벌 사회, 뽀빠이 변화 다원적, 다양화된 소량생산, 고급화된 소비, 탈중심화 타자성의 인식, 주관성의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식이 배제된 심플한 형태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채 하이테크한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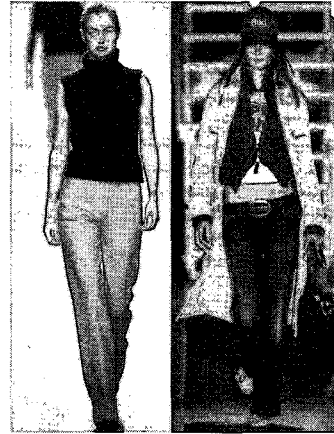
시대의 시간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새롭게 모더니즘 양식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보다 더 중점을 두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시간의 순환성에 중점을 둔 룩이라고 할 수 있겠다.

3. 컨템포러리룩

컨템포러리(contemporary)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같은 시대의, 그 당시의, 현대의, 최신의, 동시의, 동시에 발생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²¹⁾ '모던'이라는 말이 단순히 '가장 최근'을 의미하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양식 심지어 하나의 시기까지도 지시하게 된 것처럼, '컨템포러리' 역시 현재의 시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컨템포러리란 특정한 시기의 일정한 제작 양식이라기보다 예술을 지배해 왔던 어떤 지배적인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후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양식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컨템포러리 예술은 동시대인들에 의해 제작된 '우리의 예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너무도 다원주의적이어서 단일한 차원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²²⁾ 컨템포러리는 다원주의적인 양식을 표방하는 포스트모더니즘과도 구별되며, 하나의 양식적 의미가 아니라 현재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양식들을 포괄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컨템포러리에서는 현재라는 시간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패션에서 컨템포러리란 활동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를 갖춘 코디네이션으로써 현대적인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있는 옷차림을 말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극대화되어 다원화, 탈중심화, 감성과 이미지의 강조가 부각되는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은 서로 다른 디자인 요소와 이미지들의 믹스 앤 매치로 패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정보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사회의 특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의 시대적인 상황을 담아내는 패션, 자연친화, 웰빙의 건강함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담아내는 패션으로 나타난다. 이는 편안한 실루엣, 믹스 앤 매치 코디네이션, 트렌디한 감각의 표현, 기능적인 소재의 사용으로 구체화 된다. 그러므로 컨템포러리룩이란 모던룩 보다는

좀 더 캐주얼하고 트렌디한 스타일이라는 의미로 현재 패션에서 사용된다고 하겠다.



〈그림 3〉 단순하고 편안한 스타일과 믹스 앤 매치 캐주얼 스타일의 컨템포러리룩

컨템포러리룩에서의 시간개념은 현재의 시간을 가장 있는 그대로 현재로 표현하고 있는 스타일로, 현재라는 객관적인 시간을 디자이너의 주관에 의해 룩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대중들이 패션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장 생동감 있게 현재라는 시간이 표현되는 룩이라고 하겠다.

4. 퓨처리스틱룩

퓨처리스틱(futuristic)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미래의, 미래파의, 선진적인, 초현대적인, 전위적인'의 의미가 있다.²³⁾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어떤 시간 또는 그때의 삶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살아갈 행위자들이 어떠한 주체적 의지를 가지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전개되는 것이다.²⁴⁾

예술에 있어서의 미래라는 개념을 규명하기 위하여 20세기의 예술사조 중 하나인 미래주의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19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시인 마리네티(Marinetti)가 1909년 2월 20일 파리 일간지인 '르 피가로(Le Figaro)' 지에 '미래주의 선

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일어난 운동으로 이를 이어받 아 보초니, 카라, 루솔로, 발라, 세베리니가 이듬해 <미래주의회화 기술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미래주의의 미술운동이 조직되었다. 기계화와 과학의 발달에 따른 풍요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을 소음, 속도, 운동 등의 동적인 모습을 통해 표현하였고 특히, '속도'의 관념을 중요하게 부각시켰다.

미래주의의 핵심은 운동감으로 기계문명이라는 현대적 현상 속에서 표현해야 할 감동을 발견하고, 이러한 감동이 바로 운동감과 속도감으로 전해지는 다이나미즘이라는 이론을 내세운다. 미래란 과거와의 단절이며 전통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계의 다이나미즘, 속도감의 미가 새로운 시대를 표현하는 혁신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다이나미즘을 과격한 색채, 빠르게 움직이는 사선, 예각, 나선형 등의 선을 통해 역동성과 힘을 표현함으로써 나타내었다.²⁵⁾²⁶⁾ 즉, 20세기 초반 예술에서의 미래주의는 기계문명의 역동성을 낙관적으로 표현하는 움직임과 속도감이 그 중심이었으며, 그러한 흐름은 20세기를 흘러 21세기 컴퓨터와 정보의 시대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낙관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21세기 예술에 있어서의 미래주의 역시 변화된 기술력을 예찬하며 이용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패션에서 미래주의는 형태 면에서 기하학적 구성의 간결한 조형적 라인의 추구, 비대칭적이며 역동적인 형태의 사선으로 비대칭적인 실루엣을 표현하는 등 동적인 특성을 갖는다. 색채 면에서는 명료하고 경쾌한 색채의 사용과 강한 색상대비, 리듬감 있는 색의 활용으로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금속에 의한 기계미 추구, 첨단 과학적인 소재 등 기존의 패션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조형성과 요소들을 통해 낙관적인 미래의 시간을 표현하였다. 시대별로 퓨처리스틱룩의 표현을 살펴보면, 먼저 20세기 초의 퓨처리스틱룩은 기계문명에 대한 예찬, 과학의 발달 등을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므로 강한 색상 대비와 역동적인 색채, 기하학적이고 동적인 모티브와 그 모티브의 연속적인 반복에 의한 울동감 있는 직물 문양을 디자인하고 이를 활용한 스타

일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1960년대에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달나라 착륙을 통해 우주시대가 개막됨으로써 낙관적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시간을 속도의 개념보다는 우주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내었다. 앙드레 꾸레주, 피에르 가르탱 등이 대표적인 디자이너였으며, 스페이스룩(space look)이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전개하였다. 기하학적 재단에 의한 기계적인 조형성과 광택 있는 소재, 금속성 소재, 신축성이 좋은 소재를 이용하였고, 밝게 빛나는 화려한 인공적 색채를 주로 사용하여 60년대에 바라보는 우주와 우주인에 대한 낙관을 표현하였다.

1990년의 미래주의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일상화, 생활의 정보화와 함께 기계와 컴퓨터의 대중화를 표현한 사이버룩(cyber look)으로 나타났다. 첨단과학이 가져온 정보화 시대의 하이테크놀러지를 사이버의 전자이미지와 기계의 동적인 현상 및 빛의 효과로 패션에 적용시켜 인간의 이상적인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²⁷⁾ 첨단과학으로 개발된 하이테크 소재의 활용, 메탈이나 홀로그램 등 빛나는 색채의 사용, 반복적인 복제성을 나타내는 패턴의 반복적 사용이 그 특징으로 나타났다.

21세기 초인 현대의 퓨처리스틱룩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적인 보급을 넘어 유니쿼티스(ubiquitous)개념의 등장과 관련되어 '언제 어디에서나' 컴퓨터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환경의 변화 개념을 패션과 접목시키는 스마트룩(smart look)의 연구개발을 들 수 있겠다. 의복과 컴퓨터의 결합으로 기능적 신체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룩은 초창기에는 컴퓨터를 의복에 부착하는 정도로 그쳤으나 최근에는, 의복에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내장 시켜 극한 상황에서 착용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혈압, 체온 등을 알 수 있는 센서를 부착하여 건강을 관리 할 수 있는 스마트 운동복, 바이오 센서를 부착하여 수면 시 땀의 양이나 체온 등과 신진 대사의 변화에 따라 방안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속옷 등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의 퓨처리스틱룩은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인간중심의 사고와 접목시키는 시도로 나타나

고 있다.

이와 같이, 퓨처리스틱룩에서의 시간개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시간을 주체가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표현한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5. 클래식 룩

클래식의 사전적 의미²⁸⁾를 살펴보면, ‘일류의, 표준적인, 고전적인, 유서 깊은, 전형적인, 유행에 매이지 않는, 전통적인’의 의미가 있다. 패션에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의상으로, 유행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입는 특정한 스타일의 의상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²⁹⁾

패션에서의 클래식룩이란 유행에 따른 약간의 디테일의 변화는 수반하여도 전체적인 실루엣은 유지되는 지속성을 갖는³⁰⁾ 단순한 형태에 실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의상을 말한다. 가디건 스웨터, 테일러드 수트, 트렌치코트, 샤넬수트 그리고 샤넬의 검정

드레스 등은 그 좋은 예로 이러한 디자인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1920년대에 샤넬이 ‘작은 검정드레스(little black dress)’를 발표했을 때 전 세계인이 입게 될 디자인이라는 의미로 샤넬 포드(Chanel Ford)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그 후 이 디자인은 매 십년마다 새롭게 재해석되어 나타났다.³¹⁾



<그림 4> 전통적인 샤넬룩(좌)과 2004년 재발표한 샤넬룩(우), 룩의 기본은 유지하면서 소재와 색채를 다양하게 변화하며 디테일에 새로운 요소들을 추가한다.

<표 4> 퓨처리스틱룩의 시대별 흐름

구분	미래에 대한 표현	퓨처리스틱룩의 특성	이미지	시간성
20세기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문명에 대한 예찬, 과학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탄 색상 대비와 역동적인 색채, 기하학적이고 동적인 모티브 속도감과 율동감 다이나믹한 직물 문양을 디자인한 스타일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의 발달 우주시대가 개막, 달 착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주적인 표현, 앙드레 쿠레주, 피에르 가르нье 기하학적 커림에 의한 기계적인 조형성 금속성 소재, 신축성이 좋은 스트레치 소재 금속성 색채, 인공적 색채 		<p>미래의 객관적인 시간을 주체가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표현한 주관적인 시간</p>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트로지, 정신적 안정의 추구 과학과 기계의 비약적인 발전 인터넷의 대중화 해진쟁과, 인류 멸망에 대한 공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룩 사이버의 전자이미지와 기계의 동적인 현상 및 빛의 효과를 패션에 적용 규칙적이고 명료한 기하학적 패턴의 반복 		
21세기 초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비쿼터스(ubiquitous)의 시대 정보통신 기술과 환경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 기능을 가진 스마트룩 직물이나 섬유 등에 적용된 최첨단 기술 		



〈그림 5〉 영화 카사블랑카에서의 전통적인 트렌치코트(좌)와 2000년 루이비통(우)의 트렌치코트. 기본적인 형태는 살리고 소재와 디테일을 이용하여 새롭게 표현한다.

결론적으로 클래식룩은 지속적인 스타일이며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일치하고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패션이다. 이는 계속해서 많은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무난한 스타일로 보편적이고 고급스러운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세기 후반 클래식룩의 대표적인 몇가지 예를 정리하면 <그림 4>, <그림 5>와 같다. 이와같이 클래식 룩은 시간의 흐름 자체를 초월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의 순환성을 보이면서 반복된다고 하겠다.

위에서 정리한 시간성이 반영된 패션은 모두 현존하므로 그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또한, 현대에 이룰수록 다양화, 개성화, 절충주의라는 시대상의 영향을 받아 같은 이름의 룩일지라도 보다 더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며,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이 다양한 요소들이 믹스 앤 매치 되고 절충되어 표현되며, 보다 자연스러운 형태와 색채와 소재로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시간이라는 주제는 오랜 시간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지만 아직까지도 시간개념과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문화와 종교,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분야마다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간개념을 정리, 분류하고 이를 중심으로 패션을 살펴봄으로써 패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시

간성을 담은 패션 룩은 우선,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한, 레트로룩, 모던룩, 컨템포러리룩, 퓨처리시틱 룩과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여 유행하는 클래식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세기 여성 패션을 중심으로 문헌적 고찰과 조형적 특징을 분석한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개념은 관점에 따라 크게 인간의 존재와 별개로 객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객관적 시간관과 인간이 인식하는 시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주관적인 시간관, 시간은 반복되며 주기가 있다는 순환적 시간관과 시간은 방향성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직선적 시간관 즉, 대립되는 객관적 시간관-주관적 시간관, 순환적 시간관-직선적 시간관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인간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과학, 철학, 역사, 예술을 해석하는 시각이 달랐으며 또한, 과거, 현재, 미래는 각각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중심으로 통합된 연속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둘째, 패션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는 상호 관련성을 지니는 복합적인 시제로 존재하면서 새로운 의미와 이미지를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시간성이 표현된 패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각각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연속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는 패션의 창작 과정 안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과거의 시간을 현재에 끌어들이 표현할 수도 있고, 현재의 시간을 현재 그대로 표현할 수도 있으며,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 패션이 가지고 있는 주기성의 개념 자체가 이미 시간개념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셋째, 시간성을 중심으로 패션의 룩을 재구성하여 그 특징을 고찰한 결과, 레트로룩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상호작용에 의한 복합적인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현재라는 시간의 표현을 과거의 아이디어에서 차용하여 표현함으로써 과거의 시간을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디자이너의 주관에 의해 재현시키는 것이다. 레트로룩은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중요한 트렌드의 하나가 되고 있는데, 각 시대

별 레트로룩이 주기적으로 순환되어 등장하면서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라 새롭게 다양하게 변화, 발전됨으로써 시간의 순환성과 직선성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모던룩은 현재라는 시간개념 뿐 아니라 모더니즘이라는 양식적인 의미를 현재에 새롭게 해석하는 의미가 포함되었다. 특히, 포스트모던 시대인 현대의 모던룩은 과거 모던 시대의 시간을 순환적으로 반복하면서 새롭게 모더니즘 양식에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는 시간의 순환성에 중점을 둔 룩이라고 할 수 있다. 컨템포러리룩은 현재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스타일로, 현재라는 객관적인 시간을 디자이너의 주관에 의해 룩으로 해석하고 이것을 대중들이 패션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생동감 있게 현재의 시간이 표현되는 룩이라고 하겠다. 퓨처리스틱룩에서의 시간개념은 미래의 객관적인 시간을 주체가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표현한 주관적인 시간이라는 점이 중요하였다. 클래식 룩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한 객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나타나며, 시간의 순환성을 가지고 반복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연속된 개념이며, 현재 안에서 새롭게 의미부여가 된다는 점은 모더니즘을 반영한 레트로룩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반영한 레트로룩이 다른 조형적 특성을 갖는다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레트로룩을 표현하더라도 현재에는 다양화, 개성화, 절충주의라는 시대상의 영향을 받아 단순한 스타일이나, 아이템의 재현이나 패러디를 넘어 복합적인 의미를 전달하며, 다양한 요소들이 믹스 앤 매치 되고 절충되어 표현되었다.

이 연구는 시간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성 안에서 패션을 이해하는 새로운 개념적 모색과 학문적 토대를 구축 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1) 콜린 윌슨, 권오천, 박대희 역 (1994). 시간의 발견.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2) 이후 국어사전. 자료검색일 2005, 5. 15, 자료출처 <http://kr.kordic.yahoo.com/>
- 3) 콜린 윌슨 (1994). 앞의 책, pp. 21-75.
- 4) 권소영 (2002). 시간개념을 적용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7.
- 5) 콜린 윌슨 (1994). 앞의 책, p. 70.
- 6) 콜린 윌슨 (1994). 앞의 책, pp. 5-6.
- 7) 콜린 윌슨 (1994). 앞의 책, p. 6.
- 8) 움베르토 에코 외, 김석희 역 (2002). 시간박물관 (개정판). 서울: 푸른숲, pp. 248-252.
- 9) 송향룡 (2002). 시간에 대하여. 철학과 현실, 52, p.14.
- 10) 한소원 (2003). 패션트렌드정보기획 프로세스의 체계화와 지원도구의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8-19.
- 11) 송향룡 (2002). 앞의 논문, p. 14.
- 12) 한소원 (2003). 앞의 책, pp. 40-41.
- 13)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자료검색일 2005, 5. 15,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 14) 이봉덕, 양숙희 (200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11), pp. 164-165.
- 15) 김지은, 박혜련 (2003). 레트로 이미지를 이용한 패션 상품개발-베스트(vest)를 중심으로-. 복식, 53(7), p. 11.
- 16)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자료검색일 2005, 5. 15,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 17) Arthur. C. Danto, 컨템포러리, 오병남 역 (1998). 모던, 포스트모던. 예술문화연구, 8(1), pp. 239-240.
- 18) 박숙현, 이순덕 (2001). 시대정신과 복식조형성과의 상관성(제2보). 한국의류학회지, 25(5), p. 882.
- 19) 김민자 (2004). 복식미학강의2. 서울: 교문사, p. 219.
- 20) 박숙현, 이순덕 (2001). 앞의 논문, p. 882.
- 21)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자료검색일 2005, 5. 15,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 22) Arthur. C. Danto, 오병남 역, 앞의 논문, pp. 242-253.
- 23)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자료검색일 2005, 5. 15,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 24) 배규한 (1995). 미래사회학. 서울: 사회비평사, p. 20.
- 25) 김예형, 조정미 (2003). 현대 패션의 미래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복식, 53(1), p. 38.
- 26) 엄소희, 김문숙 (2000). 현대 복식의 패러다임. 서울: 경춘사, pp. 40-41.
- 27) 이수아, 박현 (1999). 미래 패션 제안을 위한 사이버 패션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3), p. 241.
- 28)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자료검색일 2005, 5. 15, 자료출처 <http://www.encyber.com>
- 29) 이해영 외 (2000). 21세기 패션 정보. 서울: 일진사.
- 30) 강진석 (1990). 샤넬복식에 나타난 "機能主義"와 "클래식스타일"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7.
- 31) 잉그리드 로쉐, 베아테슈미트, 황현숙 역 (2001). 패션의 클래식. 서울: 예경, p. 7.